청년 중심 '행복+ 익산 2630' 선포

청년 정착 · 유입… 결혼축하금, 마을자치연금 등… 귀농 · 귀촌 유도

익산시가 오는 2026년까지 인구 30만 명 회복을 목표로 한 '행복+ 익산 2630' 인구정책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행복 도시 조성에 나선다.

특히 지역 맞춤형 청년 정책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 지역의 미래비전이 담긴 대형 시책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향상시키고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이번 인구정책의 핵심은 '청년'이다. 익산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진학, 문화, 취업준비, 일자리로 연계되는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익산 청년 시청을 건립하고 청년행복지대(특구)를 설치한다. 청년특구는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대학로 일원이 포함되며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문화생활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문화특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다이룸 1억 패키지 사업도 눈길을 끈다.

이 가운데 충청·경기권 취업 시 발생하는 임금 격차인 월 40만원 가량을 보전해주는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젊은층 인구를 유입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는 가파른 집값 상승세 속에서 지역 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각종 혜택을 확대한다.

시는 민간 임대주택 특별공급 세대수를 크게 늘리고 임대료는 시세의 85%까지 낮춘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지역민뿐 아니라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들까지 확대해 인구 유입 효과를 노린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 전역을 '행복생활권'으로 조성한다.

행복생활권은 시 전역을 12개의 생활권으로 나눠 도보로 20분 안에 교육·의료·공원·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촘촘한 인프라를 갖추는 프로젝트이다. 마동과 모인, 수도산, 팔봉, 소라공원을 중심으로 민간특례 공원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이를 기반으로 향후 10년 동안 공원과 도서관, 박물관 등 총 100개의 문화·체육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인프라를 토대로 시민 예술가 1만명, 생활체육인 10만명을 양성한다.

익산시는 임신과 출산, 돌봄, 교육까지 이어지는 최대 규모의 맞춤형 지원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결혼과 출산에 부담을 느끼는 젊은 세대에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으로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아이돌봄시설 확충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익산형 학생 맞춤 교육정책'도 추진한다.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1악기, 1체육, 1외국어 특기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해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가 익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 지원하는 '연어프로젝트'를 강화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해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마을자치연금제도를 확대한다. 제1호 성당포구 마을에 이어 향후 5년 내 5호 마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한다. 익산시로 귀향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을 위해 정착단계까지 단계별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예비 귀농·귀촌인 실습농장 등을 운영해 사회, 경제활동, 여가·취미활동이 어우러지는 완성된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 모델을 갖춰나간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지도교수 노재규)' 팀이 최근 경남 창원로봇랜드에서 열린 '제2회 자율운항보트경진대회(KABOAT2021)'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자율운항보트경진대회 장려상

군산대 조선해양공학과 LAMS팀, 제스트보트와 협업 완성도 높여

군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지도교수 노재규)' 팀이 최근 경남 창원로봇랜드에서 열린 '제2회 자율운항보트경진대회(KABOAT2021)'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한조선학회와 경남로봇랜드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 경진대회는 첨단 해양 조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R&D 성과를 확산하고, 대학 연구 활성화와 우수 인재 양성, 해양 조선 분야 첨단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8개 대학 30개 팀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축전지와 모터를 탑재한 100KG 이하의 자율운항보트를 설계, 제작해 대형 수조 등에서 경주를 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군산대 LAMS팀은 GPS, 라이다, 가속도 및 자이로 센서 신호를 이용한 항법제어 알고리즘이 탑재된 라즈베리파이 프로세서 및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는 자율운항보트 'LAMS'로 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조선해양공학과 노재규 지도교수(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는 "작년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진 학생들이 올해 대회를 준비하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면서, "자율운항보트의 특성상 많은 비용의 투입이 필요한데 인력양성사업단의 산학프로젝트 지원과 산학융합지구촉진사업단(사업단장 유경현)의 재료비 지원을 통해 필수적인 센서를 확보하고 제스트보트(신혁동 대표)와 협업하여 보트 선체의 완성도를 높인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4학년 정수아, 이윤경, 임예은, 김동현, 오정연 학생은 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사업단(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취업연계형특성화과정-에너지융합조선해양학사 2021년 과정) 소속 장학생으로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아 본 대회를 준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국가예산 확보 '강행군'

예결위원 · 기재부 등 핵심인사 만나 예산 반영 요청

정헌율 익산시장이 내년도 국가 예산 최다 목표액 확보를 위해 국회를 분주하게 오가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예산심의 '최종관문'인 예결위원회 예결소위 예산심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년도 예산에 대한 증액 및 감액심사를 본격 진행 중이다.

정 시장은 지난 23일 예산소위 심사에 대응하여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예결위원과 기재부 예산실 간부 등 국회와 정부 핵심 인사 등에게 익산시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장철민, 정태호 예결위원 등을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환경오염 피해지역(익산 장점마을) 친환경 복원사업, ▲국립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 등 국회단계 중점사업에 대하여 예결의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

또한 예결위 증액요청 예산의 최종 반영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의 증액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안도걸 제2차관, 임기근 경제예산실의관,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 김경희 복지안전예산실의관 등을 만나 국회단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호소했다.

앞서 시는 상임위 심의단계에서 지역구 한병도, 김수흥 국회의원와 함께 인력풀을 가동하여 여야 국회의원과 각 위원회 의원들을 찾아 국가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전북도와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며 정책질의서를 제공하는 등 견고한 공조체계 구축으로 20여개 중점사업 전체가 예결위 심사자료에 포함됐다.

정헌율 시장은"정부 예산안에 누락됐거나 감액된 각종 사업을 되살리려는 정부기관과 지자체들이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우리시와 전북도, 지역정치권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국가예산 최대 확보 실적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예술의 전당, 기획 프로그램 운영

개관 8년 차를 맞이한 군산예술의전당이 코로나19 여파에도 관객과 소통하며 일상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군산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시기임에도 철저한 방역과 객석 간 거리두기로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해 왔다. 한해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14건의 기획공연·전시와 47건의 대관 공연과 예술 단체 및 개인이 직접 진행한 23건의 전시 등 다양한 작품을 올려 군산시민이 예술의전당을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매진 흥행을 이룬 작품으로는 넌버벌 퍼포먼스 '몽알스', 쥬크박스 대표 뮤지컬 '광화문 연가' 등이 있으며 뮤지컬 '빈센트 반고흐', 국악 콘서트 '락', 연극 '스페셜라이어' 등 우수 작품들이 성황리에 공연됐다.

아울러 군산시립예술단은 시민을 위한 치유와 힐링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11회, 예술의전당 앞 야외광장에서 진행된 예술아 놀자! 광장콘서트 3회, 정기·기획연주회 16회, 문체부 집콕 문화생활사이트 온라인공연 업로드 8회 등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친근한 문화 기회를 제공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민 · 관 · 경 · 학 합동 학교폭력 대책 강화

익산지역 유관 기관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마련을 위해 총동원 된다.

익산시는 23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익산시, 익산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과 지역 청소년 유관기관 협의회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익산시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관별 학교폭력예방 관련 사업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와 기관 간 협조 방안 등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유기적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대책 공공 안전망을 보다 강화키로 약속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각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익산=이득훈기자

군산시, '산불 없는 해' 목표 산불 방지 총력

군산시가 '산불 없는 해'를 목표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산불 방지 대책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증가하는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불예방 홍보 활동 및 소각행위 계도를 통해 산불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산불 없는 해'를 목표로 본청 산불종합상황실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산불 방지를 위한 단계별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안전한 산불 진화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산=한경봉기자